

## 이주서사로서의 『파친코』(Pachinko) 연구\*

신 영 현

## I. 머리말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이민진(Minjin Lee)이 2017년에 발표한 『파친코』(Pachinko)<sup>1)</sup>는 일제강점기의 출발이 되는 1910년부터 1989년까지의 80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김선자라는 조선인 여성과 4대에 걸친 그녀의 가족이 부산의 영도, 오사카의 이카이노, 요코하마를 넘나들면서 격동의 세월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한 내용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이민진은 서울 출생으로 일곱 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의 퀸즈로 이민 갔으며, 이후 예일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지만, 건강 문제로 사임한 후 전업 작가가 된다.<sup>2)</sup> 『파친코』는 출판 당해 전미도서상 소설 부문 최종 후보작에 선정되고,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17년 10대 최고 도서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 애플사에 의해 TV 시리즈물로도 제작되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24).

1) Min-Jin Lee,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2017). 본 논문에서는 3부로 구성된 영문 원본을 신승미가 2권으로 나눠서 번역한 아래 한글 번역본을 주 텍스트로 활용하기로 한다. Minjin Lee, 신승미 역, 『파친코』(서울, 인플루엔셜, 2022). 이후 인용 시에는 괄호 속에 로마숫자 대문자로 권수를 표기하고 면수만 적기로 한다.

2) Alexis Cheung, “An Interview with Min Jin Lee,” *The Believer*, 127-1(2022). <https://www.thebeliever.net/an-interview-with-min-jin-lee>.

변호사를 그만두고 왜 소설가가 되었느냐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이민진은 자신은 “오랜 동안 병약했고, 항상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내가 죽으면 뭘 남기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 보았” 다고 답변하면서,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었으며, 자신은 “디아스포라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디아스포라가 영원한 인간 상태이기 때문” 이라고 대답한다.<sup>3)</sup> 즉, 디아스포라는 자신의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는 말이다. 디아스포라는 “자신 혹은 자신의 선조가 모국으로부터 둘 혹은 그 이상의 지역으로 이주 분산한 경험,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나 신화, 모국과의 상호작용 및 연대의식, 귀환의식, 거주국에서의 차별과 소외감”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sup>4)</sup> 이런 맥락에서 디아스포라는 “소수자의 차이 혹은 차별과 ‘다중정체성’ 이란 탈근대적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는 실체” <sup>5)</sup>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민진은 자신이나 가족의 이주나 이산 경험을 형상화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일조선인, 즉 자이니치(在日, Zainichi)<sup>6)</sup>를 서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이런 이유에서 양미영은 『파친코』가 “자전적 사소설의 범주를 넘어선 새로운 자이니치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주장한다.<sup>7)</sup> “『파친코』는 한국인의 일본이주사를 영어로 써서 미국에서 출간한 작품이어서, 미국문학, 한국문학, 일본문학, 그 어디에도 귀속되기 어려운 경계의 문학” <sup>8)</sup>이라는 김미영의 지적은 『파친코』의 특성을 잘 요약해 준다.

3) 같은 글.

4) William Safran,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1—1(1991), pp. 83-84.

5) 박승희, 「이주문학의 현재성과 교육적 의미」, 『동북아문화연구』, 28(2011), 138쪽.

6) ‘자이니치’의 한자를 직역하면 ‘일본 거주’라는 뜻인데, 이 말에는 당연히 비영속성이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조선 반도에서 이주해 일본 열도에 정착한 인구 집단과 그 후손을 지칭” 한다. John Lie, 김혜진 역, 『자이니치』 (서울: 소명출판, 2019), 7쪽. “‘자이니치’는 제일한국인 조선인이 자신들에게 붙인 이름으로 ‘차별과 소외’를 표상하는 디아스포라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이기도 하다. 김응교, 「이방인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1(2010), 129쪽.

7) 양미영,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타난 기독교와 미국 표상」, 『인문학연구』, 61-2(2022), 111쪽.

8) 김미영, 「민진 리의 『파친코』와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의 비교 검토」, 『한국현대문학연구』, 65(2021), 302쪽.

이민진에 따르면, 『파친코』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에 관한 이야기이며, 문자 그대로 조국이 식민화되면서 추방과 이주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집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sup>9)</sup>이다. 자신은 “사람들이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고 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고 싶었”으며, “이러한 소속감 그리고 소속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내게 항상 중요한 문제였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파친코』는 집(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진정한 집을 찾아가는(혹은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진정한 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묻는 소설인 셈이다. 그렇다면 『파친코』는 이주문학이라는 조망 하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주와 디아스포라는 본 작품의 핵심 키워드들인 셈이다.

## II. 본론

### 2.1 『파친코』에 대한 기존 연구

『파친코』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고향’ (Hometown)이라는 부제를 달고 1910년에서 1933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부산 영도에서 하숙 집을 운영하는 김훈과 김양진 부부의 딸로 태어난 주인공 김선자의 사랑과 결혼 서사를 그린다. 선자는 열여섯의 나이에 제주 출신의 생선중개상 고한수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지만, 뒤늦게 그가 이미 일본인 아내와 세 딸을 둔 유부남임을 알고 그와 결별한다. 꿈쩍없이 아비 없는 아이를 낳은 행실 나쁜 여자로 낙인찍힐 상황에 처한 선자는 젊은 목사 백이삭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와 결혼한 후 함께 오사카로 이주한다. 오사카의 빈민촌 이카이노에 온 선자부부는 시아주버니인 백요셉과 그의 처인 경희와 한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2부는 ‘모국’ (Motherland)이라는 부제를 달고 1939년에서 1960년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선자네의 분투를 그린다. 주된 공간적 배경은 오사카이다. 2부의 주요 서사는 백이삭이 함께 일하던 교회 직원의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한 경찰의 단속으로 체포되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집안에 닥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선자는 요셉을 설득해서 김치 장사에 나선다. 2년 후 출소한 이삭은 노아에게 “너를

---

9) Alexis Cheung, “An Interview with Min Jin Lee.”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I, 304)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이삭의 죽음에 상심한 요셉을 대신해 선자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한다. 이 와중에 한수는 그림자처럼 선자와 그녀 가족들을 돌보고 보호한다. 그 사이 청년이 된 노아는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한다. 행복한 대학 생활을 영위하던 노아는 너그러운 후원자인 줄로만 알았던 고향수가 자신의 친부이자 야쿠자임을 알게 되면서 절망과 자기혐오에 빠진다. 대학을 중퇴하고 집을 나간 노아는 생면부지의 장소인 나가노에 정착해서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경멸하던 파친코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간다. 한편 노아의 동생 모자수는 타고난 성실함으로 젊은 나이에 파친코장의 지배인이 되고, 조선인 여성 유미와 결혼한다. ‘파친코’라는 부제가 달린 3부의 주된 공간적 배경은 모자수의 파친코 사업장이 있는 요코하마이며, 1962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간을 다룬다. 유미는 아들 솔로몬이 세 살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그 사이 노아는 일본인 아내를 맞아 가정을 이루고 네 아이의 아버지로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십육 년 만에 한수의 도움으로 자신을 찾아온 선자를 만나본 직후 노아는 총으로 자살한다. 이후 서사는 솔로몬의 연애와 직장 생활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솔로몬은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난 조선인 입양아인 피비와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의 결혼을 꿈꾸지만,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확인하게 되면서 결국 헤어진다. 『파친코』의 마지막은 이삭의 무덤을 찾은 선자가 죽기 전까지 노아가 이삭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말을 묘지 관리인에게 듣고는 그때까지 갖고 있던 노아의 열쇠고리를 땅에 묻고 경희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출간 이래로 『파친코』는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몇 가지 갈래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이주문학으로서의 특성에 착안해서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 과정과 혼종적 정체성 형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태생적으로 자신이 떠난 조국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정착지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이주자들의 특성상 정체성 찾기 및 경계 허물기는 이주자 문학의 핵심 모티프가 된다. 박승희는 이주문학을 “민족문화와 외국문화의 접촉과 충돌, 그 경계에서 만들어진 민족문학”<sup>10)</sup>으로 정의하며, 한국의 이주

10) 박승희, 「이주문학의 현재성과 교육적 의미」, 『동북아문화연구』, 28(2011), 136쪽.

문학은 “이주 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선인의 이주 생활과 역사적인 상황 등을 형상화함으로써 민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민족적 정체성과 이국 문화의 융합 지점, 즉 다문화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sup>11)</sup> 이런 맥락에서 오태영은 “『파친코』의 서사는 경계 위의 존재로서 재일조선인의 자기 보존의 욕망과 발현이 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강화되는 한편, 결코 그것이 달성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을 서사화하고 있다”<sup>12)</sup>고 주장한다. 『파친코』가 “일본 사회의 인종주의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재일교포, 즉 자이니치의 굴곡진 실존을 보여주는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이라는 손영희의 연구<sup>13)</sup>도 이에 속한다. 두 번째 갈래는 영도와, 오사카, 요코하마로 이어지는 주인공 가족의 이주 경험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파친코』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예컨대 “장소에 대한 태도, 장소와의 관계는 각 인물의 실존적 특성을 형성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파친코』가 “솔로몬을 통해 인습과 편견으로 가득 찬 장소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국가 경계의 전횡성을 비판적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임진희의 연구<sup>14)</sup>가 대표적 예이다.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조선과 일본 그리고 이주를 꿈꾸는 또 다른 공간 미국이라는 장소가 그들의 삶에서 의미하는 정체성, 즉 ‘장소성’(placeness)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및 행동 코드의 함의”에 주목하는 전현주의 연구<sup>15)</sup>도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갈래로는 주인공 선자가 영도와 오사카가 요구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당당한 여성적 주체로 성장해가는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가 있다. 이경재는 탈장소의 경험이 “특정 장소에 고정된 기존의 젠더 질서를 초과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현시키는 계기로 작동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영도에서 시작해서 오사카를 거쳐 요코하마로 이어지는 선자의 여정이 “전통적 공간 구분의 기체인 공사 이분법을 넘어 특정 장소에 고정된 기존의 젠더 질서를 초과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창출을 위한 시도”라고 해석한다.<sup>16)</sup>

11) 같은 논문, 135쪽.

12) 오태영, 「경계 위의 존재들—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현대소설연구』, 82(2021), 397쪽.

13) 손영희,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이민진의 『파친코』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25-3(2020), 76쪽.

14) 임진희, 「민진 리의 파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8(2019), 276-277쪽.

15) 전현주, 「파친코의 ‘장소성’ 서사 연구—사람 장소 환대의 개념을 중심으로」, 『人文科學』, 124(2022), 124쪽.

16) 이경재, 「이민진의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춘원연구학보』,

이러한 연구들은 『파친코』와 관련해서 다들 범한 주요 주제를 망라하고 있지만, 막상 앞서 이민진이 『파친코』의 집필 동기이자 주요 특성으로 소개한 ‘집(고향) 찾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공통적으로 노정한다. 또한 자신들이 내세우는 논제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파친코』의 등장인물들을 일면적으로 곡해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주제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파친코』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과 장면들의 박진성(verisimilitude)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주제를 균형 있게 논의하면서, 중심인물들의 주요 선택이 진정한 집을 찾아가는 노정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를 따져 보고자 한다.

## 2.2 『파친코』에 나타난 자이니치 서사, 디아스포라 문학 그리고 트랜스내셔널리즘

『파친코』는 자이니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만, 몇 가지 점에서 기존 자이니치 문학과는 차이가 있다. 자이니치의 두 가지 본질적 특징은 “첫째, 그들은 자유의지로 일본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결과 강제로 일본에서 살게 되었고, 둘째, 그들은 자기 민족을 식민 지배했던 구종주국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sup>17)</sup> 그런데 일반적인 자이니치의 특징과 달리, 사실 주인공 선자가 일본행을 선택하는 것은 조국의 식민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아비 없는 아이 출산으로 동네에 행실이 나쁜 여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녀를 백이삭과의 결혼 및 이에 따른 오사카행으로 내몬 것이다. 이경재의 말대로 “선자가 끝내는 영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도는 전통적인 젠더 질서가 완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sup>18)</sup> 이처럼 선자가 영도를 떠난 것은 조선이 식민지화되어서가 아니라 영도라는 전통 사회에 강고히 자리 잡은 젠더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때문이다. 집을 상실한 이유가 달라지면 집을 찾는 해법 또한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에서 김미영은 『파친코』는 자이니치 문학이 아니라 “낮선 환경에 처한 이민자들이 탈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삶에만 집중하여 경제적 성취를 이룸으로써 현지인의 텃세를 견뎌낼 내적

22(2021), 107, 128쪽.

17) 김미영, 「민진 리의 『파친코』와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의 비교 검토」, 『한국현대문학연구』, 65(2021), 304쪽.

18) 이경재, 「이민진의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113쪽.

힘을 기르는 데 성공하는 이야기로, 보편적인 이민자 문학의 성격이 강한 작품”이라고 규정한다.<sup>19)</sup> 김미영은 저자가 “이념이나 국적 문제에 함몰되어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무책임한 자가 된 이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차별을 견디며 끝까지 가족에게 헌신하여 끝내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그러면서 “역사가 우리를 망쳐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소설의 첫 문장에서 “역사에 의해 망쳐진 삶이 이삭, 노아, 요셉의 경우라면, 그래도 상관없는 삶은 고한수, 모자수, 솔로몬, 선자의 것으로, 작가는 이주민의 삶은 역사의 활컴에도 끄떡하지 않는 후자들에 의해 지속됨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다.<sup>21)</sup>

그러나 이러한 명쾌한 이분법은 정작 『파친코』를 읽은 실감과는 거리가 있다. 단적으로 『파친코』가 이삭을 역사에 의해 망쳐진 인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고한수를 역사의 질곡에도 끄떡없는 생존력을 보여주는 인물로 긍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삭은 이념이나 국적 문제에 함몰되어 가족에게 무책임하게 행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가 감옥에 간 것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주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목사로 일하던 한인교회의 중국인 직원 후가 신사참배 도중에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된 때문이다. 사실 이삭은 “후의 신앙과 저항의 몸짓을 존경”(I, 252)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념에 함몰되어 가족을 내팽개친 인물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한편 고한수 역시 이념이나 민족 등의 추상적 개념은 완전히 무시하는 인물로 그려지긴 하지만, 사실 그에게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념적 준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한수는 민족주의나 종교나 심지어 사랑까지도 믿지 않았으나 교육은 믿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믿었다. (II, 96)

이렇게 보면, 『파친코』의 인물들을 평가하는 주요 준거는 해당 인물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냐를 신봉하느냐이며, 그것이 과연 진정한 집을 찾거나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19) 같은 논문, 305쪽.

20) 같은 논문, 329쪽.

21) 같은 논문, 318쪽.

또한 『과친코』가 일반적인 자이니치 서사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이니치 서사로서의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순자는 자신의 발로 이삭과 함께 오사카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지만, 사실은 조선에서 추방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유진의 주장<sup>22)</sup>을 상기해 본다면, 선자의 오사카행을 추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자이니치 서사의 첫 번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존 리(John Lie)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자발적 추방과 강제이주라는 자이니치의 본질이 사실은 일종의 지나친 단순화이며, 자이니치 중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일본행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핵심은 1940년대에 전쟁 동원으로 강제 징용이 자행되기 전까지는 일본 열도로 향한 조선인 이주도 어느 정도 자발적이었다는 사실이다. … 그러니까 1920년대와 1930년대 상당수 조선인에게 일본은 기회와 약속의 땅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전쟁 전 일본 정부와 고용주에 죄를 묻지 않는다면 역시 문제가 된다. 실제로 강압은 전시에 심해졌다.<sup>23)</sup>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백요셉이다. 사무엘이나 이삭처럼 기독교 신앙이 독실하지 않았던 요셉이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고 기회가 닿자 다른 삶을 찾아서 주저 없이 일본으로 향했다”(I, 103)는 서술은 기회와 약속을 찾아 일본에 온 자이니치들을 대변한다. 김미영은 『과친코』의 주인공들이 “당시 이카이노에 거주하던 자이니치들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을 한 것으로 묘사”(304)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전형적인 자이니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존 리에 따르면, “극빈자들은 정보와 자원, 멀리 취업하러 가겠다는 의지 면에서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간 조선인 중 가장 소수였고, 오히려 교육을 좀 더 받은 중간층 출신이 대다수였다.”<sup>24)</sup> 이러한 설명은 작중에서 전시 동원이 이뤄지기 전인 1932년에 오사카로 건너가는 선자와 이삭 부부에게 딱 들어맞는다. 이처럼 선자와 이삭의 오사카행은 자이니치 서사의 맥락에서 논의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

22) 강유진,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교양학연구』, 9(2019), 259쪽.

23) John Lie, 김혜진 역, 『자이니치』(서울: 소명출판, 2019), 28-29쪽.

24) 같은 책, 27-28쪽.



만약 일제의 강압적인 전시 강제 징용에 따라 집(고향)을 상실한 경우라면, 이의 해결책은 보다 선명해진다. 잃어버린 고향으로, 떠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적인 선택지가 된다. 실제로 본국 귀환은 오래도록 자이니치 사회의 으뜸 화두였다. 특히 일본의 패전으로 출지에 황국신민에서 외국인 신분이 되어 버린 자이니치에게 조국으로의 귀환은 늘 우선적인 선택지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벌어진 내전과 휴전 이후 분단 조국의 복잡한 상황에서 본국 귀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일단 남한 정부는 “1970년까지 일본 내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고의로 무시” 했으며,<sup>25)</sup> 북한으로 귀환한 자이니치의 수도 196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감소한다.”<sup>26)</sup>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 계열과 남한을 지지하는 민단의 대결 구도는 자이니치 내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 요인이었다.<sup>27)</sup> 작중 이 문제를 가장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고향수의 부하인 김창호이다. 그는 고향이 대구이지만, 이념적으로 동경하는 북한으로 건너가 조국 통일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창호는 북에 가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고 싶었으나, 대구에도 가고 싶었다. 부모의 묘를 찾아가서 돌보고 이제는 제사도 제대로 지내고 싶었다. (I, 362)

이는 “재일 조선인 대다수(90%)가 남쪽 출신이기는 했지만,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대다수는 이데올로기상으로 북한에 일체감을 표시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sup>28)</sup> 김창호는 자기가 연모하는 경희 옆을 계속 지키면서 그녀와 결혼을 꿈꾸지만, 끝내 경희가 자신을 거절하자 마침내 북으로 떠나고 만다.

비록 선자의 오사카행이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십 년 동안이나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작은 바위섬 영도는 선자의 기억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하고 환하게 남아 있었다. 이삭이 천국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선자가 마음속으로 그린 천국의 모습은 고향이었

---

25) 같은 책, 81쪽.

26) 같은 책, 90쪽.

27) 같은 책, 82쪽.

28) 같은 책, 84쪽.

다. 투명하고 빛나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I, 376)

자신의 의지로 떠나온 고향이지만, 선자는 “그곳에서 살 때는 그곳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 (I, 377)는 점을 후회하고, 실제로 조국의 내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하지만 고향수를 통해 일본보다 훨씬 더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진 조국의 상황을 전해 듣고 차마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던 차에, 한수가 양진을 오사카로 모셔 오게 되면서 선자는 귀국을 포기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통해 선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 여성에서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트랜스내셔널 주체로 성장해 간다.

트랜스내셔널리즘이란 “하나의 국가에만 속해있었던 개인의 정체성을 확대해 국경을 넘나드는 통문화적 존재로 보는 새로운 사조”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여기서 ‘트랜스’라는 접두어는 “횡단국가적, 초국가적, 통국가적, 탈국경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sup>30)</sup> 이민문학이나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우 “대개 작가 자신의 분열된 정체성,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파편적 자아, 소통의 단절과 상실감 등을 가장 주요하게 다루”<sup>31)</sup>면서, 대개 “이민자의 ‘트랜스내셔널’한 경험은 ‘내셔널’한 틀 안으로 포섭, 동화되는 방식으로 작품의 갈등이 해결”되는 반면, 트랜스내셔널 문학에서 “정체성이란 ‘내셔널’한 틀에 결코 갇혀있을 수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부유하는 것이며, ‘이동’에 의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섞이고, 오염되고, 혼재된 성격을 띠고 있는 것”<sup>32)</sup>으로 본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하지만, 김성곤에 따르면 “이민학과 디아스포라 문학은 기본적으로 트랜스내셔널리즘 문학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이민자들이나 국외 거주자들은 국경을 초월해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3)</sup> 『파친코』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모두 소개되며, 주인공들의 상이한 입장들을 통해 차별화된다. 손영희는 노아와 모자수의 경우 한

29) 김성곤, 「하이브리드 시대의 영미문학」,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8-9쪽.

30) 광명숙, 「윤동주 문학 연구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가능성」, 『한중인문학연구』, 37(2012), 207쪽.

31) 광명숙, 「윤동주 문학 연구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가능성」, 211쪽.

32) 박선주, 「트랜스내셔널 문학의 소속과 지평」,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0), 27-28쪽.

33) 김성곤, 「하이브리드 시대의 영미문학」, 10쪽.

국민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자기혐오와 인정욕구를 지니고 있는 반면, 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sup>34)</sup> 즉, 노아와 모자수가 “인종, 성별, 국적, 계급 등과 같이 이미 결정된 사실들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 하는데 반해, 선자는 “무국적(statelessness)의 상태를 상실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냉혹한 현실 속에서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능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sup>35)</sup> 고한수 역시 자신을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선자와 더불어 트랜스내셔널 주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는 김창호와의 대화 도중에 “난 좋은 조선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야. 난 돈을 아주 잘 벌어.” (I, 361)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또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창호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고향은 없어” (I, 361)라고 단언한다.

이민 3세대인 솔로몬 역시 트랜스내셔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인이지만,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외국 친구들과 어울리던 솔로몬은 자신의 엄마가 그토록 염원하던 미국에 가서 대학을 마치고, 도쿄의 외국계 회사에 취직한다. 솔로몬에게는 자신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그가 사랑하는 연인인 피비와 헤어지는 것은 결국 이러한 혼종적 정체성 내지 트랜스내셔널적 특성을 피비가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상당 부분 연유한다. 솔로몬은 자신이 일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남한 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귀화도 배제하지 않는다(II, 354). 하지만 자신과 결혼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는 피비의 요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도 일본인이었다. 피비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핏줄보다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두 사람의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 솔로몬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피비를 집에 보내주어야 했다. (II, 354)

양미영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 담론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두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삶의 있는 그대로의

34) 손영희,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이민진의 『파친코』를 중심으로」, 78쪽.

35) 같은 논문, 79쪽.

형태를 인정” 하는(135) 솔로몬이야말로 “‘반란자적 보편성’의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래적 인물”로서, “피해의식이나 편견 없는 관계 맺기가 가능한 인물로, 자기 해방의 보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sup>36)</sup>

### 2.3 고한수의 재발견을 통한 『파친코』 다시 읽기

『파친코』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선자이다. 그러나 작중 선자의 주체적인 선택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고한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미영의 말대로, “정보통에 재력가인 그는 선자 일가에겐 평생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다한다.”<sup>37)</sup> 고한수는 “『파친코』에서 가장 독특한 캐릭터”인데, 왜냐하면 그는 “세련된 멋쟁이인 동시에, 가부장제적인 젠더 인식을 지닌 폭력적인 야쿠자이기도”하기 때문이다.<sup>38)</sup> 한 마디로 고한수는 ‘혼종적’ 인물이다.<sup>39)</sup>

사실 그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박한 편이다. 예컨대 이경재는 고한수가 “요셉과는 달리 강력한 힘으로 선자를 자신의 곁에 물건처럼 소유하려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sup>40)</sup> 이경재는 선자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화신인 고한수의 도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간”(121)다고 해석한다. 김영삼 역시 이와 유사하게 “고한수의 멋진 양복 뒤에는 아들을 원하는 가부장적 젠더 인식과 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무라이 정신을 가장할 수 있는 야쿠자의 폭력성 그리고 천민자본주의라는 일그러진 근대의 얼굴이 존재한다”고 맹비난한다.<sup>41)</sup> 심지어 양미영은 선자가 “이삭이 남긴 유산인 종교적 믿음에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친’

---

36) 양미영,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타난 기독교와 미국 표상」, 135쪽. 여기서 ‘반란자적 보편성’은 아사드 하이더의 용어로, 디아스포라의 자유나 권리 문제를 넘어서 ‘모두의 자기 해방’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보편성은 단지 자기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해방을 요구하는 반란 행위를 통해 창조되고 재현된다. Asad Haider, 권순욱 역, 『오인된 정체성: 계급, 인종, 대중운동, 정체성 정치 비판』 (서울: 두번째테제, 2021), 177쪽.

37) 김미영, 「민진 리의 『파친코』와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의 비교 검토」, 315쪽.

38) 같은 논문, 315쪽.

39) 같은 논문, 315쪽.

40) 이경재, 「이민진의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119쪽.

41) 김영삼,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서리다—이민진의 『파친코』와 애플 TV 드라마 <Pachinko> 겹쳐 보기」, 『푸른사상』, 41(2022), 51쪽.

고한수를 용서” 한다고 해석한다.<sup>42)</sup> 이에 비하면 고한수를 “그 어느 인물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순응” 하는 인물이며, “자본주의를 철저히 따르는 자주적인 인물” 이자 “현명한 기회주의자” 로 보는 이승연의 시각이 그나마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인다.<sup>43)</sup>

사실 『파친코』의 서사가 독자가 따라가기에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심오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친코』의 주제와 교훈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상당 부분 이러한 인물형상화의 복잡함에서 기인한다. 전통적으로 문학 이론에서는 이를 평면적 인물(flat character)과 입체적 인물(round character)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 전자는 “하나의 단일한 관념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개성을 부여하는 많은 세부 사항이 없이 제시되는” 인물인 반면, 후자는 “기질과 동기가 복잡하여 … 충분히 묘사되기가 어” 려운 인물이다.<sup>44)</sup> 이런 잣대로 보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적 온유와 선함을 보여주는 백이삭은 평면적 인물에 해당되는 반면, 고한수는 전형적인 입체적 인물이다. 선자를 위해서는 너그럽고 신사다운 모습으로 일관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인물에게는 서슴없이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많은 비평가들의 시각처럼 고한수는 시종일관 자신의 이익이라는 유일한 기준에 따라 추호도 망설임 없이 행동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평면적 인물에 가깝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한두 마디의 꼬리표 달기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며, 그의 행동방식이나 사유방식 및 인물됨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민진에 따르면, 그가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한 것은 1996년이며, 『파친코』의 주요 모티프가 되는 단편소설 「모국」(“Motherland”)을 2002년에 출간하였지만, 2007년부터 남편과 함께 도쿄에 살면서 만나게 된 수십 명의 조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소설의 방향을 잘못잡았다”(II, 「감사의 말」, 370)는 사실을 깨닫고 아예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결심한다. “조선계 일본인들이 역사의 피해자들일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누구의 삶도 그렇게 단순하지

42) 양미영,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타난 기독교와 미국 표상」, 128쪽.

43) 이승연, 「생존을 위한 도박: 『파친코』를 통해 보는 자이니치의 삶」, 『아시아여성연구』, 58-3(2019), 213쪽.

44) 이명섭,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85), 402쪽.

않”(II, 「감사의 말」, 370)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파친코』의 주요 인물들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대개 그려지며, 그 결과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현실에서 늘 만나게 되는 생생한 입체성을 획득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미영은 “가부장적이면서도 젠틀맨다운 면모를 가진 고한수나, 전통적인 모성성의 존재이면서도 성적 주체로서, 또 자기주장이 분명한 선자의 성격”이 혼종적이라고 해석한다.<sup>45)</sup> 그러다 보니 고한수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저자가 고한수에게 대해서 지닌 시선은 우호적이기보다는 비판적 시선에 가깝다. 이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진행된 『파친코』의 서사가 딱 한군데에서 끊어지면서 소위 플래시백 기법이 등장하는 1부 4장의 구성이다. 플래시백이란 “작품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는 삽입된 설화나 장면”을 가리킨다.<sup>46)</sup> 1장에서 훈이와 양진의 결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서사는 그들의 네 번째 아이이자 살아남는 데 성공한 유일한 아이인 선자에 관한 소개로 이어지며, 1장 말미에서 선자가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인 훈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건으로 마무리된다. 2장은 하숙집을 꾸려가는 양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면서 그녀의 하숙생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다가 3장에서 곧장 갑작스럽게 새로운 하숙생 백이삭이 등장한다. 결핵이 재발한 백이삭을 양진과 선자가 극진히 간호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만드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러다가 다음 장인 4장은 “젊은 목사가 하숙집에 도착하기 **여섯 달쯤 전**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 선자는 새로 온 생선중개상 고한수를 만났다”(I, 49)로 시작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오던 흐름을 갑작스럽게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서 서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과거 회상은 유일하게 이 대목에서만 등장한다. 이에 대한 유일하게 타당한 설명은 선자와 한수의 만남을 묘사하기 전에 그녀와 이삭의 만남을 독자가 먼저 목격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이삭의 생명을 구한 은인으로서의 선자를 소개하고 이러한 인연이 앞으로 더 크고 소중한 관계로 이어질 것을 무의식적으로 바라게 만들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선자와 고한수의 로맨스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고한수보다는 백이삭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독자

45) 반면, “‘이삭’과 ‘경희’는 상대적으로 평면적인 인물들”이다. 김미영, 「민진 리의 『파친코』와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의 비교 검토」, 317쪽.

46) 이명섭,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507쪽.

가 여기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미국고전문학연구』에서 로렌스(D. H. Lawrence)가 제시한 “이야기꾼을 믿지 말고, 이야기를 믿어라” (Never trust the teller, trust the tale.)<sup>47)</sup>는 조언은 문학 비평의 오랜 금언이다.

작중 고한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혹은 능력은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지혜롭고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한수의 말이 옳았다” (I, 339)는 8장의 첫 문장은 한수의 특징을 단적으로 요약해준다. 이 문장은 2차대전이 끝나면 귀국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선자에게 나타난 한수가 일본이 패배하고 조선에서 물러나면 조선이 대혼란과 폭력이 난무할 것이기에 일본에 남아 있는 게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만류했던 판단이 맞았다는 뜻이지만, 사실 이 장면뿐 아니라 『파친코』 전체에서 정세를 읽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선택에 대한 한수의 판단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양미영은 한수가 선자의 인생을 망쳤다고 보지만, 작품 자체는 처음부터 한수를 선자의 은인으로 제시한다. 한수가 선자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일본인 불량배 아이들에게 붙잡혀 욕을 당할 위기에 처한 선자를 구해주는 장면들 통해서이다. 선자를 구해준 고한수는 일본 제국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위안부 사업을 알려주면서 선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잘 들어. 혼자 다니거나 밤에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혼자 장 보러 올 때는 큰길로만 다녀. 항상 사람들 보이는 데서 벗어나지 말고. 놈들이 지금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어.”

선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총독부 말이야. 일본 군인들을 위해 중국에 데려가려고 한다고. 아무도 따라가지 마. 여자든 남자든 가릴 거 없이. 조선인일거야. 중국이나 일본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말할 거고. 네가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 조심해.” (I, 60)

“고한수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다” (I, 53)는 것은 과연 과장이 아니었다. 만약에 한수가 선자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선자에게 펼쳐진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실현 가능한 최선은 바로 어머니 양진의 삶을 이어가는 것일 터이다. 양진처럼 선자도 아버지 같은 어질고 착한 신랑감을 만나 어머니의 하숙집을 물려받아 사는 삶이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이

---

47) D. H.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Harmondsworth: Penguin, 1923), p. 8.

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선자에게 보장된 삶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중적 장애가 그녀 역시 장애아를 출산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낙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은 집안에서 다리를 저는 언청이와 딸을 혼인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자식도 기형아로 태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I, 18)는 설명은 사실 김훈에게 해당되는 묘사이지만, 장애가 유전된다는 편견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선자 또한 동일한 위험 요소를 지녔다고 생각했으며, 그 결과 결혼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된 열여섯 선자에게 아무 데서도 선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임신을 하고 나서야 아버지처럼 기형인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I, 88)는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사실 선자조차도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고훈수가 선자의 삶을 망쳤다는 해석은 확실히 과한 감이 없지 않다.

한수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마음먹은 것은 기어코 이루고야 마는 집요함과 출중한 수완이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곧 닥칠 미군의 폭격을 피해 선자 가족을 오사카 외곽의 농장으로 피신시키는 대목이다. 요셉이 반대할 것을 예상한 한수는 요셉이 혹할 일자리를 만들어 그를 나가사키로 혼자 떠나게 만든다.

한수가 선자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가라고 말한 날, 요셉은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날 오후 일찍 친구의 친구가 요셉의 비스킷 공장에 들어 그 일자리 이야기를 했다. 나가사키에 있는 제철 공장에서 조선인 일꾼들을 관리할 작업반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 한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I, 320)

결과적으로 선자는 미군의 공습과 폭격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지내게 된다. 선자에 대한 한수의 사랑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한수에 대한 선자의 사랑 역시 제대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유부남의 신분으로 선자와 사랑을 나누고 결과적으로 선자의 신세를 망친 장본인이지만, 일평생 자기 방식으로 선자를 지키고 돌본 것 또한 사실이다. 한수는 선자의 꿈이 무엇인지까지 알고 싶어 했으며(I, 71), 선자와 사랑을 나누는 후에 속삭이는 “넌 소중한 내 여자야” (78)라는 그의 말은 가감 없는 진실이었다. 물론 자신이 유부남이고 당장 선자와 결혼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히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자를 속인 셈이지만, 애초에 한수는 한 여자만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한수는 남자가 한 여자하고만 관계를 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혼인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를 버릴 마음은 전혀 없었다. 한수는 남자에게 여러 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이 여자아이만 있으면 됐다. (I, 84)

한수는 선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빙긋 웃으며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내가 너랑 아이를 아주 잘 돌볼 거야. 가정을 하나 더 꾸릴 돈과 시간이 있어. 내 의무를 다할 거야. 난 진짜로 널 사랑해.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하고 있어. 이걸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야. 할 수 있었다면 너랑 혼인했을 거야. 넌 내가 혼인하고 싶은 사람이야. 너랑 난, 우린 비슷한 사람이야. 우리 아이는 사랑을 듬뿍 받을 거야.” (I, 86-87)

선자와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한 약속을 한수는 평생토록 충실히 이행한다.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선자의 가족을 지켜 주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한 것은 언제나 한수였다. 김영삼은 “고한수의 멋진 양복 뒤에는 아들을 원하는 가부장적 젠더 인식”이 존재한다고 보지만,<sup>48)</sup> 선자에 대한 한수의 태도는 노아가 설사 딸로 태어났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노아가 죽은 이후에도 선자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나보령은 “평생에 걸쳐 한 여성만을 사랑하는 요셉, 한수, 창호 같은 남성들”이 “기이할 만큼 비인간적이고 기계 같은 존재처럼 비추어진다”<sup>49)</sup>고 비판하지만, 선자에 대한 한수의 변함없는 사랑만은 인정한다. 한수가 노아 때문에 선자를 돌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선들이나 된 선자를 보면서 여전히 흥분과 욕정을 느낄 만큼 그녀를 사랑한다.

한수는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음과 활력을 되돌려줄 수 있는 어린 여자를 사랑하듯 선자를 열렬히 사랑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자를 사랑했다.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선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자는 더 이상

48) 김영삼,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이민진의 『파친코』와 애플 TV 드라마 <Pachinko> 겹쳐 보기」, 51쪽.

49) 나보령, 「모범 소수자를 넘어: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이주민 소수자 서사의 도전과 과제」, 『인문논총』, 79-1(2022), 450-451쪽.

아름답지 않았지만 여전히 선자에게 욕정을 느꼈다. (II, 162)

이렇게 보면 한수의 사랑은 선자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한수를 향한 선자의 사랑 역시 길고 질기게 이어진다. 물론 선자는 이삭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백이삭이 자신과 혼인하면 어머니와 하숙집, 자신과 아이가 고통스러운 낙인을 피하게 될” (I, 126)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혼에 앞서 이삭은 선자에게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첫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선자도 사랑할 수 있는가이고(I, 128), 다음은 자신을 남편으로 좋아할 수 있는지이다(I, 131). 이에 대해 선자는 지체없이 “예”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쉽지 않으리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해줄래요?” 라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긍정 대신 “좋은 아내가 되려고 힘껏 노력할 겁니다” (I, 132)라는 우회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사실 선자는 평생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좋은 아내로서 모든 책무를 다하지만, 고향한수를 잊지는 못한다. 이삭과의 결혼을 앞둔 선자는 “한수를 우연히 마주치게 될까 봐 두려웠” 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나쁜 일은 한수를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 (I, 147)이라고 생각한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한수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어느 곳에서나 한수의 존재감을 느꼈다” (II, 170)는 선자의 회상은 한수를 향한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다.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웠던 선자는 “어찌 됐든 한수가 자신을 조금은 원하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을 깨닫자 당황스러웠다” (II, 172). 심지어 일흔셋이 된 선자가 꿈에서 만난 한수에게서 “넌 내 여자야. 소중한 내 여자야” (II, 360)라는 말을 듣고 잠을 깬 후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지금쯤이면 한수를 잊었어야 했다” (II, 360)고 자책하는 선자의 모습은 고향한수의 존재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평생 그녀가 사랑한 이는 고향한수였지만 끝까지 그에게 가지 않았으며 그의 경제적 지원은 오직 자식을 위해서만 받을 뿐 모든 고난은 스스로 이겨낸다” 는 이승연의 지적<sup>50)</sup>은 설득력이 있다.

고한수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트랜스내셔널로서의 면모이다. 작중에서 고향한수만큼 드러내놓고 트랜스내셔널하면서 탈경계적 정체성을 표방하는 인물은 없다. 이는 북한으로 귀국하려는 김창호를 만류하면서 내뱉는 다음의 대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50) 이승연, 「생존을 위한 도박: 『파친코』를 통해 보는 자이니치의 삶」, 214쪽.

난 좋은 조선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야. 난 돈을 아주 잘 벌어. 모두가 사무라이 어찌고 하는 헛소리나 믿는다면 이 나라는 결판날 거야. 천황도 다른 사람 따위 신경이나 쓸 것 같아? (I, 361)

계속되는 대화에서 고한수는 고향이 그림다고 말하는 김창호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고향은 없어” (I, 361)라고 일갈한다. 북으로 가서 조국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김창호에게 해주는 다음의 대사는 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애국심은 그저 이념이야.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잊게 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이념에 지나치게 심취한 사람을 이용하지. (I, 362)

이런 맥락에서 김미영은 고한수가 “특정 국가의 국민이기를 거부한다”고 본다.<sup>51)</sup>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무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고한수는 실용주의자의 전형이다. 이런 이유로 나보령은 “『파친코』에서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을 지니는 또 다른 존재가 바로 고한수이다. 국경이나 이념의 차이와 무관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국가적 자본을 상징하는 그는 다른 의미에서 ‘불온’하다”고 해석한다.<sup>52)</sup> 고한수는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요셉과도 상당 부분 겹쳐지는 면이 있다. 요셉에게도 “조국이나 대의를 위한 죽음은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 살아남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다” (I, 246). 그는 “예쁘고 생기 넘치는 아내가 저녁밥을 차려놓고 자신을 맞이하는 집에 오기를 원” (I, 199)하는 인물이며,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의 화신” 같은 존재이다.<sup>53)</sup> 그러나 그가 그토록 되기를 원하는 가부장은 오사카에서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sup>54)</sup>는 점에서 작중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다. 이처럼 가족을 지키는 가부장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본인의 바람과는 달리, 처음부터 요셉은 가족에게 닥친 위기를 헤쳐갈 역량이나 지

51) 김미영, 「민진 리의 『파친코』와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의 비교 검토」, 317쪽.

52) 나보령, 「모범 소수자를 넘어: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이주민 소수자 서사의 도전과 과제」, 446쪽.

53) 이경재, 「이민진의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112쪽.

54) 같은 논문, 117쪽.

혜가 부족한 인물이다. 특히 나가사키 원폭의 피해자가 되어 한수에 의해 집으로 실려 온 요셉은 가족의 힘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한다.

차라리 요셉이 죽으면 훨씬 나을 터였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요셉이 유일하게 원하던 것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는 몸이 돼버렸고 가족을 돕기 위해 목숨을 끊을 수조차 없었다. 최악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자신이 가족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었다. (II, 33)

요셉과 한수는 이념보다 가족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자이지만, 전자가 이에 실패하는 반면, 후자는 끝까지 선자네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다. 특히 가족과 핏줄을 중시하는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요셉은 ‘남자는 밖, 여자는 안’이라는 전통적인 젠더이데올로기에 침윤되어 있는 반면, 한수는 처음부터 선자가 장사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운다는 점에서 요셉보다 훨씬 더 높이 사줄 만한 인물이다. 비록 한수는 선자가 집을 찾는 일에 드러나게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이 일을 도운 자임을 작품은 증언한다.

### 2.3. 약자들의 연대

이민진은 3부를 시작하면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를 길게 인용하고 있다. 3부의 서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내용을 발췌하자면 아래와 같다.

민족은 상상의 정치 공동체이다. 본성적으로 제한돼 있으며 주권을 지녔다고 상상된다. 민족은 ‘상상된다’. … 민족은 ‘제한돼’ 있다고 상상된다. … 민족은 ‘주권을 지녔다’고 상상된다. … 마지막으로 민족은 ‘공동체’로 상상된다. 각자에게 만연할지 모르는 실제의 불평등과 착취에도 민족은 항상 깊은 수평적 동포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동포애가 지난 두 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제한된 상상의 산물들을 위해 남을 죽이기보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게 했다. (III, 127)

앤더슨의 주장의 핵심은 민족이 실체가 아니라 상상되어진 어떤 것, 즉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기는커녕,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여기서 저자가 민족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상상 속에서 구성된 것일 뿐인 ‘민족’이라는 허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민족이 그 정도의 파급력을 행사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묘사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 이 질문은 『파친코』의 주인공들이 찾아야 할 집의 토대가 민족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집단 혹은 이념인지와 관련되는 중요한 질문이다. 3부의 서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읽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3부에서 파친코를 매개로 일본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배제되는 제일조선인들의 삶을 그리면서도, 폄박당하는 조선인들의 수평적 동포애가 강조되기보다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우정과 환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자수와 에쓰코, 모자수와 하루키 사이에 존재하는 민족을 초월한 우정과 동지 의식이다. 이때 민족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징이 바로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난 약자요 소수자라는 공통점이다. 『파친코』에는 유독 약자들의 연대가 자주 묘사된다. 얼핏 이러한 연대는 서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작가가 던지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자는 조국의 식민화 과정에서 추방당한 자이니치들이 상실했던 집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조국으로 귀환하거나 정착지 국가에 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과 다른 이유와 방식으로 추방당하고 배제당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듯하다.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모자수와 하루키의 우정이다. 학창 시절 하루키는 장애가 있는 동생의 존재로 인해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일본인 학생이며, 자신에게 내민 모자수의 손을 잡은 이후 평생 그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된다. 자라서 하루키는 경찰이 되지만,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결혼 생활을 영위하며, 모자수에게도 선을 긋는다.

하루키가 웃으면서 옛 친구 옆에서 부끄러워져서 주먹으로 모자수의 어깨를 슬쩍 쳤다. 모자수를 멀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모자수를 향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II, 78)

하루키는 “중중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어딘가에서 살기를 꿈

꿨”(II, 82)지만, 끝까지 자신의 가정과 장애인 동생을 돌보고 책임지는 가장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그에게 모자수라는 존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재일조선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이면서도 이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건실한 사업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자수의 존재가 하루키 자신과 동일시되면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나갈 이유와 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루키가 성적 소수자라면, 유미가 죽은 후 모자수의 애인이 된 나가토미 에쓰코는 사회적 소수자이다. 그녀는 이혼녀이자 행실이 나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고향인 홋카이도를 떠나 요코하마로 이주해 온 여성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사장이다. 그녀는 사고로 엄마를 잃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베풀어주지 못한 모정을 아낌없이 베푸는 여성이다. 이런 에쓰코에게 아이 솔로몬은 “나한테는 아줌마가 엄마예요”(II, 258)라고 말한다. 에쓰코는 열세 살이 된 솔로몬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는 현실에 분개하며, 그 부당성을 비판한다. 나중에 피비가 일본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할 때마다 솔로몬은 에쓰코를 증거로 대면서 반박한다(II, 303). 모자수와 에쓰코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모자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인 파친코 사업가와 결혼을 하면 자신으로 인해 낙인찍힌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까 두려워 애인 관계로 지내는 데 만족한다.

에쓰코의 딸 하나 역시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린 낙오자이다. 그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로 인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며 살아간다. 십대의 나이에 임신을 해서 에쓰코를 찾아온 하나는 중절 수술을 받은 이후 잠시 에쓰코와 함께 살면서 솔로몬과의 짧은 애정 행각을 벌이기도 하지만, 결국 집을 떠나서 도쿄에서 집대부 일을 하다가 몸살병(아마도 에이즈)이 든 채로 솔로몬을 찾는다. 죽어가는 하나는 간호사들도 외면한 자신을 끝까지 어루만져주는 사람은 선자와 경희였음을 솔로몬에게 알려준다.

“너희 선자 할머니랑 경희 할머니가 토요일마다 나를 보러 오셔. 그게 알았어? 두 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예수니 그런 건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플 때 어루만져주는 사람들이 있는 건 신성한 일이야. 간호사들도 날 만지길 두려워하거든.” (III, 348)

『파친코』에서 그려지는 약자들의 연대에서 가장 감동적인 관계는 바로 선자와 경희의 관계이다. 고향을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한 오사카에서 선자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손윗동서 경희이다. 선자를 처음 본 날 밤 경희는 “앞으로 우리 친자매처럼 지내자” (I, 170)고 말한다. 과연 이후로 두 여자는 이국땅에서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나간다. “행복을 크게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던 두 여자에게 이런 우정은 뜻밖의 선물이었다” (I, 199)는 서술처럼 둘은 서로에게 축복이요 선물이 되었다. 사실 경희의 꿈은 역 앞에 김치가게를 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절대 집 밖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요셉의 신념을 잘 아는 경희에게 이것은 이를 수 없는 꿈이었다. 그러나 선자의 출현은 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계기가 된다. 사실 경희는 일평생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현숙한 아내지만, 비현실적으로 순종적인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리얼리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작품을 잘 읽어보면, 요셉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해간다. 예컨대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내켜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처음에는 집에서 김치를 담는 일만 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수의 지시를 받은 김창호가 김치 행상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김치를 만드는 일을 제안하자 경희는 선자와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다. 드디어 집 밖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와세다 대학에 입학한 노아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선자가 고한수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는 요셉에게 “고로 상이 파친코로 번 돈이 고한수의 돈보다 깨끗한 이유가 뭐죠? 고한수는 건설 회사와 식당을 운영해요. 그런 곳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II, 37)라고 따지는 경희의 모습은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그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님을 경희도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경희의 존재는 선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경희는 양진을 극진히 보살핀다. 그래서 양진이 “경희가 니보다도 내한테 잘 했데이. 니보다 더 널 잘 보살펴준다꼬. 니는 온통 노아랑 모자수한테만 신경 쓰제” (II, 267)라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노아에 대한 마음의 짐과 죄책감을 내려놓은 후 경희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선자의 모습은 집을 상실한 사람들이 집을 찾아가는 소설의 결말로 너무나 어울린다.

선자가 가방들을 집어 들었다. 경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II, 367)

### III. 결론

『파친코』는 일제강점기의 출발이 되는 1910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김선자라는 조선인 여성과 4대에 걸친 그녀의 가족이 부산과 오사카, 요코하마를 오가며 생존을 위해 분투한 내용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이민진은 자신의 이주 경험을 형상화하는 대신, 재일조선인 즉 자이니치를 서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저자는 『파친코』가 조국이 식민화되면서 추방과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파친코』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인공들이 보여주는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 과정과 혼종적 정체성 형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다음으로는 영도와, 오사카, 요코하마로 이어지는 주인공 가족의 이주 경험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파친코』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셋째로는 주인공 선자가 영도와 오사카가 강요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당당한 여성적 주체로 성장해가는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저자가 언급한 ‘집(고향) 찾기’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파친코』에서 전면에 드러나는 주요 특징은 자이니치 서사로서의 특징과 이주문학(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및 트랜스내셔널리즘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상호연관되면서도 앞의 두 서사가 대개 분열된 정체성, 파편적 자아, 소통의 단절과 상실감 등을 민족이라는 틀 안으로 포섭하고 동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반면, 트랜스내셔널리즘은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부유하는 것이며, 대개 국경을 초월해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하며, 양국의 문화를 모두 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친코』의 경우, 이민 2세대인 노아와 모자수는 고정된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인종, 성별, 국적, 등과 같이 이미 결정된 존재 조건에 순응하는 반면, 오히려 이민 1세대인 선자는 어느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에 함몰되는 대신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보여준다. 고한수 역시 이런 점에서 전형적인 트랜스내셔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선자의 여정에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결국 선자와 같은 추방자들이 자신의 집을 찾는 것은 약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이다. 어느 민족인지, 혹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내미는 배려의 손길이야말로 집(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이 저자의 메시지이다.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신영현, yhshin@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파친코』(Pachinko), 집(고향)(home(town), 트랜스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 디아스포라 서사(Diaspora Narrative), 환대와 연대(hospitality and solidarity)

투고일: 2024. 3. 8. 심사일: 2024. 5. 14. 게재확정일: 2024. 5. 14.

<국문 초록>

이주문학으로서의 『파친코』 연구

신 영 현

『파친코』는 일제강점기의 출발이 되는 1910년부터 1989년까지 80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김선자라는 조선인 여성과 4대에 걸친 그녀의 가족이 부산의 영도, 오사카의 이카이노, 요코하마를 오가며 격동의 세월을 헤쳐간 흔적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저자는 『파친코』가 조국이 식민화되면서 추방과 이주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집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에 주목하거나, 장소에 대한 태도가 각 인물의 실존적 특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밝혀내거나, 영도, 오사카, 요코하마로 이어지는 선자의 여정이 기존의 젠더 질서를 초과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현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파친코』의 핵심 주제인 ‘집(고향) 찾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파친코』는 제일조선인(자이니치) 서사로서의 특징과 이주문학(디아스포라 문학)적 특징 및 트랜스내셔널리즘 주제를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고향(조국)을 떠난 인물들을 서사의 주인공으로 그린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앞의 두 서사가 대개 분열된 정체성, 파편적 자아, 소통의 단절과 상실감 등을 민족이라는 틀 안으로 포섭하고 동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반면, 트랜스내셔널리즘은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부유하는 것이며, 대개 국경을 초월해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하며, 양국의 문화를 모두 포용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민 2세대인 노아와 모자수는 고정된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인종, 성별, 국적, 등과 같이 이미 결정된 존재 조건에 순응하는 반면, 오히려 이민 1세대인 선자는 어느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에 함몰되는 대신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주체적 삶을 보여준다. 고향수 역시 이런 점에서 전형적인 트랜스내셔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선자의 여정에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그러나 결국 선자와 같은 추방자들이 자신의 집을 찾는 것은 고향수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약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파친코』

의 결론이다. 어느 민족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내미는 배려의 손길이야말로 집(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이다.

<Abstract>

## A Study on MinJin Lee' s *Pachinko* As a Diaspora Narrative

Shin, Younghun

This paper aims to analyze Minjin Lee' s *Pachinko* through the framework of a diaspora narrative. Set over the course of eighty years from 1910 to 1989, *Pachinko* describes the surviving history of a Korean woman named Sunja Kim and four generations of her family as they navigate through the turbulent years, migrating from Yeongdo, Busan to Ikano, Osaka, and Yokohama. The author defines *Pachinko* as a story about finding a home for those who experience expulsion and migration as their nation is colonized. Previous studies have been centered around some topics such as the protagonists' search for identities, the way place-consciousness shapes the existential characteristics of each character, or the transcending and overcoming process of the existing gender ideology by the female protagonist. However, the central theme of *Pachinko*, the search for home, has not been adequately explored.

*Pachinko*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 Korean-Japanese (Zainichi) narrative, diaspora literature, and transnationalist discourse. Despite the fact that they all depict characters who have left their motherland, they differ in the way of dealing with their diasporic experience. The former two tend to resolve their fragmented identities and feelings of loss by assimilating them into the framework of nationhood, while transnationalism sees identity itself as constantly changing and floating, usually transcending borders, and embracing multiple cultures. While Noah and Mozasu, Sunja' s sons who are second-generation immigrants, believe that fixed identities exist and dare not transcend predetermined conditions of existence, such as race, gender, nationality, etc., Sunja, a first-generation immigrant, shows a life of self-choice and self-making, refusing to be pigeonholed into one fixed identity. Hansu Ko is also a typical transnational in this sense, and he becomes a lifelong supporter in Sunja' s journey to find her own home.

In conclusion, *Pachinko* highlights that finding a home is only feasible through solidarity with underdogs and outcasts, not through the generosity of an affluent patron. No matter what ethnicity you are, or

no matter where you dwell, you can create a new home by extending a caring hand to minorities and the weak who have been pushed to the periphery of society.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이명섭,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85).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서울: 나남출판, 1991).  
Haider, Asad, 권순욱 역, 『오인된 정체성: 계급, 인종, 대중운동, 정체성 정치 비판』 (서울: 두번째테제, 2021).  
Lawrence, D. H.,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Harmondsworth: Penguin, 1923).  
Lee, Min-Jin, 신승미 역, 『파친코』 (서울: 인플루엔셜, 2022).  
Lie, John, 김혜진 역, 『자이니치』 (서울: 소명출판, 2019).

### 2. 논문

- 강유진, 「역사가 우리를 망쳐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교양학연구』, 9(2019), 253-261쪽.  
곽명숙, 「윤동주 문학 연구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가능성」, 『한중인문학연구』, 37(2012), 205-225쪽.  
김미영, 「민진 리의 『파친코』와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의 비교 검토」, 『한국현대문학연구』, 65(2021), 299-340쪽.  
김성곤, 「하이브리드 시대의 영미문학」,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7-13쪽.  
김영삼,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이민진의 『파친코』와 애플TV 드라마 <Pachinko> 겹쳐 보기」, 『푸른사상』, 41(2022), 46-62쪽.  
김응교, 「이방인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1(2010), 123-157쪽.  
나보령, 「모범 소수자를 넘어: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이주민 소수자 서사의 도전과 과제」, 『인문논총』, 79-1(2022), 429-461쪽.  
박선주, 「트랜스내셔널 문학의 소속과 지평」,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0), 26-30쪽.  
박승희, 「이주문학의 현재성과 교육적 의미」, 『동북아문화연구』, 28(2011), 135-148쪽.  
손영희,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이민진의 『파친코』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25-3(2020), 65-86쪽.  
양미영,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타난 기독교와 미국 표상」, 『인문학연구』, 61-2(2022), 109-139쪽.  
오테영, 「경계 위의 존재들—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현대소설연구』, 82(2021), 377-405쪽.  
이경재, 「이민진의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춘원연구학보』, 22(2021), 103-133쪽.

- 이승연, 「생존을 위한 도박: 『파친코』를 통해 보는 자이니치의 삶」, 『아시아여성연구』, 58-3(2019), 209-216쪽.
- 임진희, 「민진 리의 『파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8(2019), 271-280쪽.
- 전현주, 「파친코의 ‘장소성’ 서사 연구-사람 장소 환대의 개념을 중심으로」, 『人文科學』, 124(2022), 121-151쪽.
- Safran, William,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es of Homeland and Return,”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1-1(1991), pp. 83-99.

### 3. 웹사이트

- Cheung, Alexis, “An Interview with Min Jin Lee,”  
<https://www.thebeliever.net/an-interview-with-min-jin-lee> (검색일: 2024년 3월 6일).